

중국 시각디자인학과 명칭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

The Education of Chinese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t.
with the change of Name

주 저 자 : 이병주 (Lee, Byung Ju)

한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bjayink@hanmail.net

<https://doi.org/10.46248/kidrs.2020.4.360>

접수일자 2020. 11. 27. / 심사완료일자 2020. 12. 14. / 게재확정일자 2020. 12. 24.

Abstract

China's visual communication design education has changed its name due to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art education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culture. Historically its primitive design has been made into commercial art, again from decorative art to graphic design, today's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change of 'academic name' reflects the change in values resulting from the cultural conflict between China's historical background and Western culture. This is the case of "Jianghuang art," which has a strong nuance of Chinese book binding tradition, instead of "decorative art," which has the same meaning. It is also a unique phenomenon in China to include graphic design or visual transfer design in the category of 'art & design'. The closer look at these names will reveal the ideas and methods of education, the form of education, the content of classes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changes in forms. In this view, this paper aims to be the basic data of future domestic visual design education and comparative research while defining the paradigm shift of visual design education in China.

Keyword

Commercial art, Decorative art, Graphic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요약

중국의 시각디자인 교육은 시대적으로 “도안(圖案)”에서 “상업미술(商業美術)”으로, 또한 “장식미술(裝幀美術)”에서 “평면디자인(平面設計)”, 그리고 오늘날의 “시각전달디자인(視覺傳達設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학명’의 변경은 중국의 역사적 배경과 서구문화 사이의 문화적 충돌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 중국 서적장정 전통의 색채가 강한 ‘장황미술(裝潢美術)’을 의미가 같은 ‘장식미술’ 대신에 사용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또한 오늘날 디자인교육의 특징인 디자인과 예술의 확실한 경계에 반해 ‘예술디자인’이라는 범주에서 평면디자인이나 시각전달디자인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러한 명칭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본다면 교육의 이념과 방법, 교육 형태, 즉 수업의 내용 및 형식의 변화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 시각디자인 교육의 명칭변화를 단초로 중국 시각디자인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규정해봄과 동시에 향후 국내 시각디자인교육과 비교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도안 교육: 중국 그래픽디자인의 시작

- 2-1. “도안(圖案)” 교육
- 2-2. 상업미술과 평면디자인(平面設計) 교육

3. 공예미술 분과의 장식미술

- 3-1. “장식미술(裝幀美術)” 학과의 출현
- 3-2. 장식미술 교과과정의 변화

4. 예술디자인 분과의 평면디자인

- 4-1. ‘예술디자인’ 내 평면디자인학과와의 시작
- 4-2. 평면디자인 교육의 발전

5. 정보화시대의 시각전달디자인

- 5-1. 시각전달디자인 개념의 도입
- 5-2. 시각전달디자인학과와 교육개혁

6.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문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에서 ‘평면디자인’이란 용어는 ‘그래픽디자인’을 번역한 것으로 시각디자인 전반을 의미하는 단어인 동시에 학과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그래픽디자인’은 오늘날 ‘시각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학과명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중국에서 사용하는 ‘평면디자인’은 국내 기초 교과과정의 ‘평면디자인’이나 ‘평면조형’의 의미와는 무관하다. 이는 중국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일한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유사할 것이란 막연한 추측과는 다르다.¹⁾

‘평면디자인’ 이전에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장황(裝潢) 미술’은 또 다른 예이다. ‘장황’은 이전 국내에서도 학과명칭에서 사용하였던 ‘장식 미술’의 ‘장식(裝飾)’의 미와 동일하지만 여기에는 한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조형적 특징과 가치를 내포하는 의미가 투영되어있다. 즉 중국 평면디자인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자긍심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평면디자인 교육은 자신만의 독특한 발전 궤적과 발전 단서를 요소요소에 갖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디자인교육 역시 세계적 패러다임에 맞추어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따른 학과 명칭의 변경이나 교육시스템의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통적 공예 미술과 예술중심의 디자인교육에서 세계화와 부합하는 현대적 디자인 교육으로의 극적인 변혁, 즉 교육이념에서 교육 목표, 학과구조에서 수업설정, 수업내용에서 교육방법에 이르는 시스템상의 중대한 변혁, 즉 창의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환경의 적응을 우선하는 교과과정 설계와 조직을 통하여 여러 번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1)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선 의미의 혼란을 막기 위해 평면디자인을 그래픽디자인으로 번역하지 않고 혹은 ‘평면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7. 결론

참고문헌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도안’ 교육에서 시작된 ‘장식 미술’에서 ‘평면디자인’, 또한 ‘시각전달디자인’으로의 학과 명칭 변화는 단순한 이름만의 변화가 아니고 중국 시각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디자인교육 내적 변화 및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시각디자인학과 명칭의 변화에 따른 중국 디자인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를 통해 향후 양국 시각디자인 교육의 비교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현재 중국 학계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서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되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위주로 중국 시각디자인교육의 변화를 추적, 분석하고자했다. 따라서 학과나 전공 명칭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한 중국 미술디자인의 역사적 지형을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국 평면디자인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부 관련 대학의 시각디자인 교육 자료 분석을 통해 시각디자인의 발전 궤적과 각 시대의 시각디자인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해 중국의 시각디자인의 교육이념, 내용 및 방법의 발전 맥락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논문 성격상 지명, 인명, 사건 등 중국 고유의 사항들이 많이 등장하나 연구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중요도 위주로 각주 처리하였다.

2. 도안 교육: 중국 그래픽디자인의 시작

2-1. “도안(圖案)” 교육

‘도안(圖案)’은 그림의 일정한 형태나 패턴을 의미하며, 제품을 만들거나 건축 전 과정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전에 설계된 그림 및 설계도를 의미한다. 도안의 대상에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도안’은 특정한 기계기구

나 건축 실체의 조형, 구조, 색채, 문양을 상상하여 고정 재료, 사용, 경제 및 생산 조건에 따른 그림 이미지를 제작함을 의미한다.”²⁾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도안’은 시각장식물, 제품, 환경 및 작물, 서적 등의 표면 문양, 즉 장식적인 평면 문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도안’은 20세기 초 일본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정식 학과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중국 민국(民國)³⁾ 초기의 도안 교육은 일본 도안 교육을 참고하였으며⁴⁾, 1918년 최초로 북경미술전문학교(北京美术专门学校)에서 도안학과가 개설되었다. ‘도안’은 수공예교육, 공예교육, 공예미술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과 더불어 정식 미술교육의 과정이 되었다. 도안 교육 체계는 기본도안과 공예도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기본도안에서는 각 도안의 기본 형태, 원리 및 구성 방법을, 공예도안에서는 평면도안과 입체도안을 교육하였다. 따라서 디자인교육은 형태, 문양, 색채를 포함한 다방면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당시 ‘도안’에 대한 인식이 단지 장식 문양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도안’은 그 단어가 사용되던 초기부터 일개 학과의 명칭이었고 디자인교육 중 디자인기초교과과정을 담당하는 한 축이었다. 당시 디자인교육에 대한 포괄적 인식은 예술디자인 성격으로 변모한 공예미술의 영역에서 변화와 통일을 원칙으로 모양새와 반복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자연 형태와 추상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었다.⁵⁾

2-2. 상업미술과 평면디자인(平面设计) 교육

19세기 중후반 중국은 서구열강의 패권전쟁의 결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상하이, 광저우 등의 항구 도시들이 서구에 의해 속속 개방되어 서구문물의 유입통로가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민족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동서양 경제와 문화 충돌로

통상 항구는 중국 근대의 경제, 문화, 교육 사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상품의 유통과 무역의 빈번해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상업미술(商业美术)’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민국 시기 상업미술의 주요 매체는 상표 디자인, 포장디자인, 서적장정디자인 외 상업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업광고들이었다. 따라서 상업미술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고 상업적 체계로 운영되는 미술디자인의 유형으로, 주로 도형, 문자, 색채 등의 요소를 통해 상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인쇄공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완성된 포스터, 현수막, 서적, 잡지, 전단지 등의 형태를 제작하는 것이었다.⁶⁾

당시 학교에서 도안교육, 수공예교육, 공예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상업미술은 교육의 중요내용이 되지 못했으며 전문화된 ‘전공’ 형태의 개념도 없었다. 그 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단편적으로 취급되었을 뿐이어서 용기, 기본도안, 공예도안, 인쇄기술 등 디자인과 직접 관련 분야조차 초기 예술중심의 공예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와는 큰 격차가 있었다. 정규 교육과정엔 수업과정이 개설되지 못하였고 상해 주변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서구 여러 나라의 디자이너들이 진행하는 비정기적 소그룹 특강이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부설 직업 특별과정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개설된 과목인 ‘상업도안’, 광고기초, 진열방법, 상업미술개론 등으로 당시 상업미술의 주요 커리큘럼이었다.⁷⁾

일부 연구자의 주장대로 근원적으로 상업미술은 회화에서 태어났다고⁸⁾ 볼 수 있다. 그만큼 당시 중국의 시각디자인은 상업미술과 회화의 접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후에 ‘평면디자인’ 교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상업광고의 주요 항목으로 발



[그림 1] 19세기말 월분패(月分牌) 형식을 이용한 상업광고

7) 张智铭, Op. cit., p.8.

8) 林家治, 民国商业美术史, 上海人民美术出版社, 2008, p.7.

9) 중19세기 중엽 서구와 교역이 활발했던 상해에서 시작된 대표적 상업미술 양식으로서 전통년화(새해명절을 축하하는 그림)를 계승 발전한 카드 형식으로 그림풍이 당시 상업미술에 많이 활용되었다.(그림1 참고)

10) 중국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음식을 관장하는 신인 자오왕(灶王)을 목판인쇄한 그림으로서 전통명절을 축하하고 새

2) 曹方, 视觉传达设计原理, 江苏美术出版社, 2005, p.256.

3) 1911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청나라가 몰락하고 1912년 중화민국이 건립되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 이어지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민국(民國) 시기라고 한다.

<https://www.sogou.com/sie?hdq=AQxRG-4437&query=%E6%B0%91%E5%9B%BD&ie=utf8>

4, 5) 张智铭, 从“图案设计”到“设计”, 南京艺术学院, 2010, p.5.

6) Ibid., p.7.

인의 형식과 방법은 중국 전통 목판년화인 ‘자오왕마(灶王码)’¹⁰⁾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것이 이후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아 전통년화에서 월분패화화, 그리고 광고회화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당시 상해 상업미술의 특징을 구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세기 2~30년대에는 상공업 중심의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상업 미술은 여전히 상하이, 광저우 등의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번성하였으나 일본의 중국 침략과 이에 따른 항일 전쟁의 발생으로 인해 이같은 상업미술 변형의 흔적은 퇴색하였고 상업미술 활동 자체가 어려워졌다. 더불어 디자인 교육기관이나 주요 산업들 역시 내륙으로 이전하거나 폐쇄되었으므로 상업미술은 정체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상업미술 도안은 형식과 내용이 애국심을 주제로 한 항일선전디자인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전쟁과정에서 형성된 미술교육은 상업미술 교육에서 ‘혁명을 위한 교육 봉사’ 개념으로 전환됨을 의미하게 되었다”¹¹⁾

상업미술 시대의 도안교육은 내용면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회화와 공예의 일부로서 진행되었으므로 도안교육은 기초조형, 인쇄기술, 도안작업 등 극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었을 뿐 학과의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업미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깨닫게 된 사실이다. 이것이 중국의 ‘장식미술(장황미술, 装潢美术)’, 나아가 ‘평면디자인’ 교육의 길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3. 공예미술 분과의 장식미술

3-1. “장식미술(装潢美术)” 학과의 출현

1949년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항일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방치되었던 사업들을 다시 시행하여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교육의 질서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교육의 형식과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신중국¹²⁾ 설립 초기부터 1952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해소원들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11) 陈瑞林. 20世纪中国美术教育历史研究, 清华大学出版社, 2006, p.155.

12) 민국시기를 지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를

예술학교는 재정비가 이루어졌고, 당해 1952년 전국 규모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미술관련 대학과 학과가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1956년엔 중앙공예미술학원(中央工艺美术学院)이 설립되어 미술디자인과 공예미술 교육 사업이 바야흐로 시작했고, 당시 공예미술교육은 초기 공예교육, 도안교육, 수공예교육, 실용미술교육을 바탕으로 개혁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전문적 교육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1950년엔 옛 국립항저우예술전문학원(国立杭州艺术专门学校)의 ‘인쇄미술학과’가 중앙미술학원(中央美术学院)으로 합병되면서 중앙미술학원 인쇄학과 전공수업에 ‘인쇄공예(印刷工艺), 서적장정(书籍装帧)디자인, 조판디자인(版式设计), 포스터디자인, 상품포장디자인 및 상품로고디자인, 인턴십과목 등’¹³⁾이 새로 추가 개설되었다. 1956년 중앙공예미술학원 설립 이후 원래의 인쇄미술학과는 ‘장식장정(装潢装帧)’학과로 변경되었으며 그 안에 ‘상업미술전공’과 ‘서적장정전공’을 두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쇄미술’이 ‘장식미술’로 대체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중국에서 ‘장식(장황, 装潢)’이라는 용어가 시각디자인을 대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로써 ‘장식미술’, ‘장식디자인’, ‘미술장식’ 등의 단어로 변용되어 대학교육의 전공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식을 뜻하는 ‘장황(装潢)’은 본래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중국 서화표구(书画装裱)에서 유래한 단어로 서적장정을 미화한 중국식 표현이다.¹⁴⁾ 따라서 이를 ‘서적장황디자인’이라고도 불렀다. 이를 통해서 ‘장식디자인’ 초창기에 장식의 의미를 고대 ‘장황’의 함의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서적장정디자인의 발전 과정에서 표지디자인부터 서적의 전체 디자인, 서체 디자인부터 삽화 디자인, 판식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인쇄공예디자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중국 전통의 ‘장황’의 색채를 따르고 있었다.

출판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서적장정디자인은 점차 지면, 삽화, 문자 등의 처리방식에 있어 도안디자인이나 상업미술의 영향이 합류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구분하여 ‘신중국’이라고 부른다.

13) 夏燕靖, 对我国高校艺术设计本科专业课程结构的探讨: [博士学位], 南京艺术学院, 2007, p.78.

14) 张智铭, Op. cit., p.8. 한국이나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식디자인의 ‘장식’과 뜻은 같으나 중국은 전통 서적장정개념이 내포된 ‘장황’을 채택하여 ‘장황디자인’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선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장식미술’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중앙공예미술학원에서선 상당히 오랫동안 서적장정디자인과 상업미술디자인을 장식미술학과에 있는 두개의 전공으로 분리하여 개설하였고, 이러한 전문적인 설정 및 분류 방식을 통해서 ‘장황’의 본래 의미와 전통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지속했다.

3-2. 장식미술 교과과정의 변화

현대적 디자인 교육과정의 인재 양성 방향에 따라 ‘장식디자인’의 일관성이 형성되어가고 동시에 서구의 ‘평면디자인(graphic design)’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디자인교육계는 장식미술을 더 이상 여러 전공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명칭상의 혼란을 종식시키고자했다. 1987년에 발표된 <일반대학사회학과 전공목록(普通学校社会科学本科目录)>에서는 장식미술 중의 상업미술 디자인과 서적장정디자인의 두 전공을 합병하여 ‘장식디자인’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다.¹⁵⁾ 이러한 조정은 전문적 명칭을 명확하고 규범화하는 동시에 ‘장식미술’에서 ‘장식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교육과 전통공예미술 교육의 경계를 정확히 하고자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또한 사회적 수요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으로서 전공 학생들의 전문성 계발이나 취업을 비롯한 진로개발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짙었다.

장식디자인과에서 당시 시행된 새로운 방식의 교육내용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삼대구성(三大构成)’ 교육의 도입이다. 1980년대 중국 디자인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삼대구성(三大构成)’과 ‘도안’의 논쟁이었다. 평면구성, 입체구성, 색채구성의 세 부분의 디자인기초교육을 의미하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이 ‘구성’ 교육은 70년대 말에 중국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이미 반세기 이상 중국에 존재해 온 도안 교육에 큰 파장과 충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삼대구성’는 디자인기초 교육이 되어 전통적 ‘기초도안’ 교육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 큰 변화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시스템(CIS: Corporate Identity System)’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해외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중국 국내기업들에 의해 이 시스템이 중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정립에 효과적인 CIS는 기업계의 핫이슈가 되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들 모두 벤치마킹을 통해서 CIS 도입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CIS 디자인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이 분야의 정규

교과과정 개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90년대 초에 이르러 많은 대학에서 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시스템(CIS)’ 교과가 개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육의 변화는 교육현장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컴퓨터 디자인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컴퓨터 개인화 활용의 시대를 연 매킨토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중국에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90년대부터 국내의 많은 광고회사와 디자인회사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컴퓨터는 효율적이고 정밀도가 높고 복잡한 시각적 효과를 쉽게 표현할 수 있어 디자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 사용은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필수 교과과정이 되었다.

4. 예술디자인 분과의 평면디자인

4-1. ‘예술디자인’ 와 평면디자인교육의 시작

중국에서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평면디자인’으로 번역되어 사용하게 되었는지 정확하진 않으나 ‘그래픽디자인’이 1970년대 국제적인 공용어가 되면서 1980년대 전후로 홍콩에서 출판된 도서가 유입되어 중국 본토로 소개되었고 이것이 ‘평면디자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 ‘평면디자인’ 용어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이다.¹⁶⁾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중국 경제는 급속한 속도로 성장된 계획경제 체제에서 점차 개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하였으며, 교육 분야도 예외없이 외국에서 유입된 선진 지식과 경험의 토대 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공예미술 관련 전공이 개설되었으나 기존의 공예미술 교육 방식으로는 현대산업형 사회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보다 근본적인 선진 교육시스템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공예미술교육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서구의 선진그래픽디자인, 즉 ‘평면디자인’ 교육이 비로소 등장하게 된 것이다.

‘평면디자인’ 전공은 개혁개방 20여년이 지나면서

16) 高晟,

从学科名称的演变看中国视觉传达设计教育的发展, 工业设计 2016. 6, p.75.

15) Ibid., p.15.

비로소 현대적 개념의 ‘예술디자인(艺术设计)’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정착되기 시작했다. 1998년 반포된 ‘일반대학학부전공목록(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目录)’은 장식디자인 및 다른 6개의 전공을 합쳐서 ‘예술디자인’ 학부 내 편성한다는 원칙하에 ‘예술디자인’의 명칭을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적인 ‘공예미술’ 교육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2001년 중국 교육부는 개혁을 심화하여 미래의 취업수요를 고려하여 구체적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예술디자인’의 큰 범주 내에서 유연한 다전공교육을 실시해야함을 강조하였으나¹⁷⁾, 이는 실제 교육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재도 여전히 ‘예술디자인’ 학부내의 독립전공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디자인학부에 ‘예술’이란 명칭이 더해졌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술디자인’이 중국식 개념인 것은 분명하고 ‘예술’과 ‘디자인’을 병렬하여 디자인의 예술적 특성을 강조하여 학과의 특성에 여전히 ‘미술’의 개념이 남아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¹⁸⁾

4-2. 평면디자인 교육의 발전

실제 도입 초기의 디자인 교육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장식미술 교육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장식하는 심미적 표현 기법에 치중해 있었고 장식미술 전공의 커리큘럼은 다분히 직업교육 성격이 강하여 하나의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광고나 인쇄디자인, 서적장정 등 장식미술 각각의 결합체에 불과하였다.¹⁹⁾ 당시 대학들은 탐색과 모색을 반복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면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초기의 커리큘럼은 대체로 짜깁기 흔적이 뚜렷하였다. 단적인 예로 중앙미술학원은 1980년대 중후반 상업사진, 편집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과정을 도입했고, 난징미술학원(南京艺术学院)은 투시도법(图法), 사진촬영, 문자디자인 등의 과목을 교과과정에 도입했으나 수업 목표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내용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고 과거 수업 내용과 겹치는 등 커리큘럼의 난맥상을 초래했다. 이는 선진디자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게다가 교수진들은 순수예술학이나 중국화, 미술교육전공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면디자인 교육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

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도기를 지나면서 중앙미술학원이나 칭화대학 등의 선도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선진교육시스템을 적극 받아들이고 유학 출신의 교수진들이 속속 영입되면서 21세기 들어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했고, 곧 전국 일반대학 전역으로 ‘평면디자인’ 개념이 급속히 파급되었다.

평면디자인 교육의 양대 축으로서 중앙미술학원과 칭화대(清华大学) 미술학부의 디자인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미술학원 디자인 교육의 목적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창의적 사고와 실천력을 갖춘 디자인 인재를 양성에 두었다. 디자인학부내 평면디자인전공은 교육시스템을 보다 선진화된 창의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비율로는 중국 국내 디자인 교육계에 보다 널리 보급되어 있는 칭화대학교 미술학부 평면디자인 전공의 커리큘럼과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새로운 교수진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인재들로 구성되었고, 초기엔 대부분 여러 국제 유명한 디자인 학교나 국제 저명디자이너들과의 광범위한 학술 교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점차 자체적인 교육 방식을 구축하였다. 전문 교과들은 현대 디자인의 개념, 사고, 표현 및 중국 문화 전통과의 결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선진 진보적인 디자인 이념 및 방식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차별화된 개성을 고취 격려했다. 나아가 예술, 기술, 문화 및 디자인의 융합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 교육과 스튜디오 교육으로 이루어진 이중 교육 시스템을 수립했다. 스튜디오 교육에선 이미지디자인, 서적디자인, 문자디자인, 시각이미지 통합디자인(视觉形象系统设计), 도시이미지 디자인, 영상광고디자인, 디자인 기초교육 등의 다방면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칭화대 미술학부의 평면디자인 교과과정은 1999년 합병된 중앙공예미술학원의 과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1996년 중앙공예미술학원은 새로운 평면디자인 교과요강을 제정하였고 이는 칭화대 통합 이후 2001년 수정보완되었다. 이 커리큘럼은 중국내 평면디자인전공 교과과정의 표본이기도 하다.

1996년의 교과요강에 따르면 전공기초과목으로 장식기초, 문자디자인, 편집디자인, 인쇄실무, 출판일러스트레이션, 서적장정역사, 소비심리학, 마케팅론, 커뮤니케이션론 등이 있다. 전공심화 교과에는 포장디자인, 광고디자인, 광고학, 대중커뮤니케이션론, 광고학, 상표

17) 张智铭, Op. cit., p.23.

18) 冯阳, 学分制下艺术设计教学模式研究, 南京艺术学院, 2016, p.104.

19) 曹方, Op. cit., p.16.

법, 포장법, 로고디자인, 상업사진, POP디자인, 서적장정디자인, 기업이미지디자인, 졸업작품, 졸업논문이 개설되었다. 2001년 재개정 이후 조정된 전공기초과목은 기초조형, 기초사진, 기초구성, 기초디자인, 장식디자인론, 광고개론, 디자인심리학, 마케팅론, 이미지발상, 편집레이아웃디자인, 기초장식디자인, 색채학, 문자디자인, CAD(计算机辅助设计, Computer Aided Design) 등이다. 전공심화 교과는 광고전략, 광고표현, POP디자인, 시각인식시스템 디자인, 서적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사진예술과 기술, 뉴미디어 창작과 응용,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애니메이션 기법(原动画技法, key frame animation) 및 포스트프로덕션, 유기조형디자인, 포장디자인, 사회조사론, 마케팅, 전공실습, 졸업디자인, 졸업논문으로 구성되었다.²⁰⁾

5. 정보화시대의 시각전달디자인

5-1. 시각전달디자인 개념의 도입

‘시각전달디자인’은 영문의 ‘visual communication’을 직역한 것으로 1950년대 막스 빌(Max Bill)이 독일 울름조형디자인대학에서 처음 ‘시각전달’이라는 강의를 개설한 이래, 1960년대 이르러 그래픽디자인 전공의 미래가 전통 인쇄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매체와 영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래픽디자인의 대체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²¹⁾ 마침내 1970년대 정보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각매체가 각광을 받으면서 ‘시각전달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보다 과학적, 합리적이며 새로운 디자인의 트렌드와 부합하였다. 이는 시각전달디자인이 ‘시각전달’이라는 보다 광의적 개념을 통해 그래픽디자인을 넘어 영상디자인, 디지털매체디자인, 웹디자인 등 관련 매체가 어떤 유형이든 일방적인 정보 표현이 아닌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르러 중국에서도 ‘평면디자인(그래픽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각전달디자인’을 학과 명칭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곧 큰 저항에 부딪혔다. 그 이유는 대다수 평면디자인의 개념이 ‘시각적 전달’이라는 목적과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범위한’ 단어로 특정 전공을 지칭한다는 것은 모호하고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1996년 중국미술학원(中国美术学院)이 ‘장식디자인 전공’을 ‘시각전달디자인학과’로 바꾸면서 마침내 당시 전문가들과 교육계의 참여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평면디자인과 시각전달디자인의 전공 명칭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당시 불기 시작한 정보기술혁명이 디자인교육에 미치는 실질적인 충격과 영향이 존재하였다. 그 주요 배경에는 시대가 변화하고 나라 경제의 발전 상황이나 사회대중의 욕구가 크게 바뀌었는데 인재양성 모델이나 커리큘럼은 여전히 과거의 공예예술, 도안 및 장식디자인 훈련에 머물러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웠기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논쟁에 불씨를 제공한 것은 디자인 이론가 그어홍옌(葛鸿雁)이 1997년 <신미술(新美术)>에 발표한 소논문, <시각전달디자인학과 명칭에 대한 생각(关于视觉传达设计学科名称的思考)>이었다. 그는 시각적 원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시각전달’의 의미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 본질과 내용, 교육과정으로의 발전추세에 대해 구체적 과목까지 명시하는 등 혁신적 내용을 제시하였다.²²⁾ 이는 인쇄를 전제로 한 평면디자인에 천착해있던 당시로선 지극히 탐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전달디자인’만이 시대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여 당시 디자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혼돈의 세기말을 거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도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시각전달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201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더욱이 친환경디자인, 융합디자인, UX디자인 등의 등장으로 학문간, 매체간 다원적 교차 추세가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각전달디자인’은 시대 변혁의 대명사로써 널리 통용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부는 1998년에 이어 2012년 ‘일반대학학부전공목록(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目录)’을 다시금 공표하게 되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학부에 해당하는 ‘디자인학(设计学)’ 내에 3개의 전공영역, ‘예술디자인학(艺术设计学)’, ‘시각전달디자인(视觉传达设计)’, ‘환경디자인(环境设计)’이 개설되었다.²³⁾ 이로써 ‘시각전달디자인’이 명실상부 독립된 전공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간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 머물던 디자인의 개념이 완전히 ‘디자인의 학문’으로 독립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의미심장한 사건은 반세기 넘도록 사용되어온 ‘장식미술’이란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20) 张智铭, Op. cit., p.24

21) 高晟, Op. cit., p.102.

22) 葛鸿雁, 关于视觉传达设计学科名称的思考, 新美术, 中国美术学院出版社, 1997, pp.50~55.

23)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高等教育司编, 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目录和专业介绍, 2012, p.12.

5-2. 시각전달디자인학과와 교육개혁

서구의 선진 디자인 교육시스템은 이미 시각전달디자인 전반에 걸친 인식을 갖고 다양한 전공교육시스템을 구축, 진행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성격상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시각전달디자인학과 교육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주로 시각전달디자인학과 내부에 미디어 특성에 따라 명확한 전공 방향을 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각전달디자인학과 내에 그래픽디자인, 티비와 영화,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포토그래피, 뉴미디어 등의 세부전공을 개설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시각전달디자인학과이긴 하나 기존 그래픽디자인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다. 그래픽디자인에서 시작하지만 교육 내용 중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시켜 새로운 가치를 해석하는데 집중한다. 전공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학습과 작업실천을 통해 학제 간에 협동 창작이 가능하다.

중국의 시각전달디자인전공 운영의 실례를 보면, 먼저, 1998년부터 모든 전공은 '예술디자인학부' 안으로 통합되었고 각 학교는 학과의 특성, 건학이념 및 인재양성 목표 등에 따라 일차로 평면디자인의 영역과 내용을 설정한 이후 시각전달전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서로 다른 단과대학이나 다른 디자인학과에 설치하여 학제간 융합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중국미술학원의 예를 들면 시각전달디자인을 2차원, 3차원, 4차원 디자인으로 분류하여 예술디자인학원, 공공예술학원, 미디어애니메이션학원, 건축예술학원에 편성하여 다양한 교과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평면디자인 교육에 인터넷, 삼차원, 애니메이션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앙미술학원의 경우는 시각전달전공의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튜디오 방식의 수업을 운영하여 스튜디오 내에서 타 영역과의 학제간 연구나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교과 진행이 과거 평면적이고 정형화된 것에 반해 점차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광주미술학원(广州美术学院)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은 아직까지 장황디자인학과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전통적인 평면디자인 과정에 정보전달방법론, 사고의 표현, 창의적 표현 등의 시각전달기초과목 등을 보강하고 다원화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자 온라인광고, 네비게이션시스템디자인, 전시디자인, 영상광고 등의 다매체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였다.

6.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문제

전자구적인 정보화, 세계화 추세는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분야 간 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장되어 문화적 충돌을 비롯하여 자원의 통합, 학문의 융합 현상이 일어났다. '평면디자인'의 새로운 이름인 시각전달디자인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은 주로 지속적인 사회적 지식 구조의 업데이트와 이에 걸맞는 수준 높은 인재양성의 수요로 인해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반면에 아직도 많은 중국 대학의 디자인교육에선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기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발견된다. 특히 1999년 이후 중국 대학 신설이 확대되면서 전공 개설 1순위로 시각전달디자인학과가 무차별적 양산되면서 교육의 질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선 중국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을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인재양성에 부적합한 교육시스템의 문제이다. 앞서 살핀 대로 시각디자인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과거 도안교육이나 장식미술 시대에서처럼 그림만 잘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는 사고능력, 표현 처리 능력, 나아가 학제간의 융합 능력까지 요구된다. 논문 전반에 언급된 선도 대학들의 교육개혁과 그 성과가 아직 중국 전역으로 보편화되기에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다. 따라서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선도대학들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짜깁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실제 운용시 현실과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²⁴⁾

두 번째는 중국 전통의 주입식 디자인 교육의 영향이다. 디자인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경험의 주입이 아닌 학생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반해, 중국 디자인교육 현장은 주입식 교육 방식에 익숙하다. 주입식 교육의 배움의 방식은 '모방'이다. 학생은 교수자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창의적 본질이 모방으로 변질될 소지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또한 많은 경우 교재의 기본원리, 기초 기법 등에 의지하는 지식 전달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디자인 교육이 '재능에 의한 교육'이 아닌 '교재에 의한 교육'으로 바뀔 수도 있다.²⁵⁾ 여기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24) 钱江, 对当前高校视觉传达设计教学发展趋势的思考, 美术教育研究, 2020.1, p.104.

25) 张智铭, Op. cit., p.36.

수업 인원 학생 수가 과중하게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주입식 교육을 강제할 뿐 아니라 교수자에게 극심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수업의 질적 만족을 저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수진 구성과 운영의 문제이다. 중국 디자인대학의 교수직 구성은 일반적으로 전임교수, 학제간교수²⁶⁾, 외래강사로 나뉜다. 전임교수는 전임으로 학과 전반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나 전통적으로 대부분 실무경험 없이 석사졸업 후 바로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공심화과목이 아닌 기초 과목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학제간교수는 본래 순수한 다학제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전공교수인원 부족에 따른 보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시각디자인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여 지식융합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전공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 수도 있다. 외래 강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뛰어난 자원으로 학생들이 전공 관련 실무나 최신 트렌드를 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외래강사들은 부족한 전임교수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기도 하지만, 일부 대학에선 전임교수 부족을 메우고자 외래강사로 많이 채우는 경우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외래강사 인원의 절대부족으로 재학중인 대학원생 같은 자질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외래강사로 초빙되기도 한다.

5. 결론

중국의 시각디자인 교육은 사회문화적 형태와 예술 디자인 여건 변화에 따라 도안교육에서 상업미술로, 장식미술에서 평면디자인으로, 다시 시각전달디자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포장디자인이나 서적장정디자인, 광고디자인, 정보디자인, 또는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등의 명칭이 등장하여 기존의 학과 명칭과 의미가 중복되거나 바뀌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이는 단순히 명칭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의 발전 단계를 제시하고 그 안의 본질적인 개념의 변화에서 내용에 이르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더불어 이러한 '학명'의 변경은 중국의 역사적 배경과 서구문화 사이의 문화적 충돌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변화를 뜻한다. 근본적인 의미가 동일한 장식미술 대신에 중국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장황'이란 고유명사를 사

용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또한 오늘날 디자인교육에 있어서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에 반해 '예술디자인'이라는 범주에서 평면디자인이나 시각전달디자인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국만의 특화된 현상이다. 더불어 학명의 변화가 서구 중심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민국(民国)의 건립이나 개혁개방과 같은 정치 역사적 지형의 변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역시 중국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선 중국의 시각디자인 교육을 학과 명칭의 변화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중국의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에서 시각디자인 교육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한된 지면과 자료를 통해서 지난 1세기의 중국 시각디자인 교육의 변천을 다룬다는 한계가 분명 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시각디자인교육의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내 시각디자인교육과 비교연구에 있어 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曹方, 视觉传达设计原理, 江苏美术出版社, 2005
2. 林家治, 民国商业美术史, 上海人民美术出版社, 2008
3. 夏燕靖, 对我国高校艺术设计本科专业课程结构的探讨, 南京艺术学院, 2007
4. 陈瑞林, 20世纪中国美术教育历史研究, 清华大学出版社, 2006
5. 李砚祖, 视觉传达设计的历史与美学,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0
6. 葛鸿雁, 关于视觉传达设计学科名称的思考, 新美术. 中国美术学院出版社, 1997
7. 高毅, [德]泽韦林·武赫尔在德国学习平面设计, 江西美术出版社, 2008
8. 邓中和, 书籍装帧创意设计. 中国青年出版社, 2004
9. 诸葛铠, 设计艺术学十讲. 山东画报出版社 2006

26) 학제간(跨专业) 교수란 디자인 전공 교수가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타전공의 교수를 이른다.

10.高晟,从学科名称的演变看中国视觉传达设计教育的发展, 工业设计 2016. 6

11.冯阳, 学分制下艺术设计教学模式研究, 南京艺术学院, 2016, p.104.

12.钱江,

对当前高校视觉传达设计教学发展趋势的思考, 美术教育研究, 2020.1